

MEDIACCES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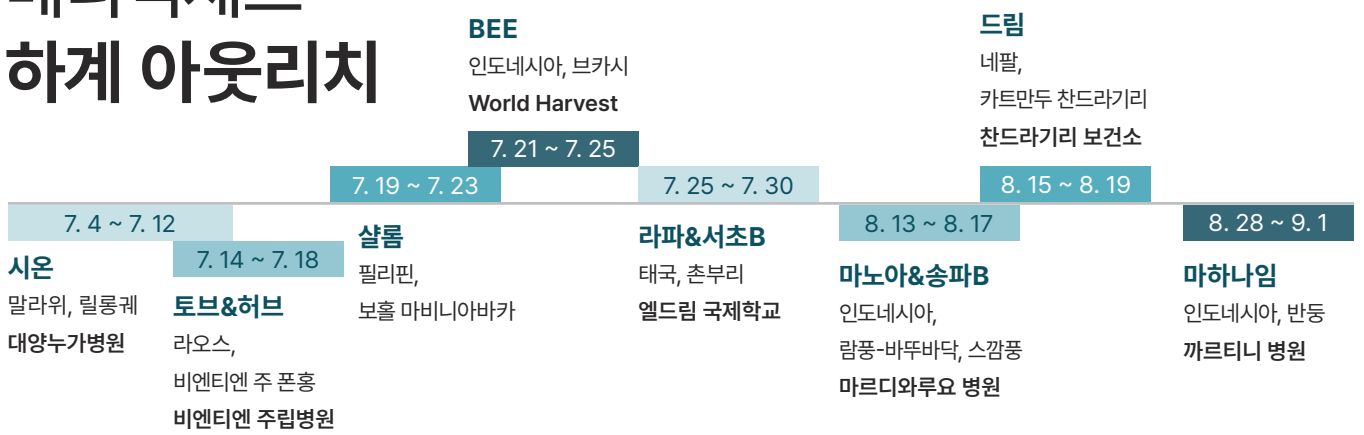
No. 2

Summer Outr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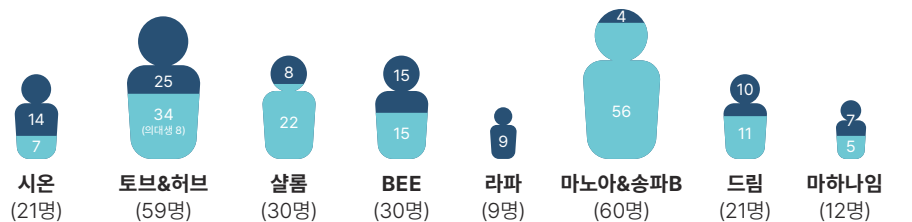
2026.9.12



2026 메디엑세스 하계 아웃리치



아웃리치 팀별 구성



01 아웃리치 진료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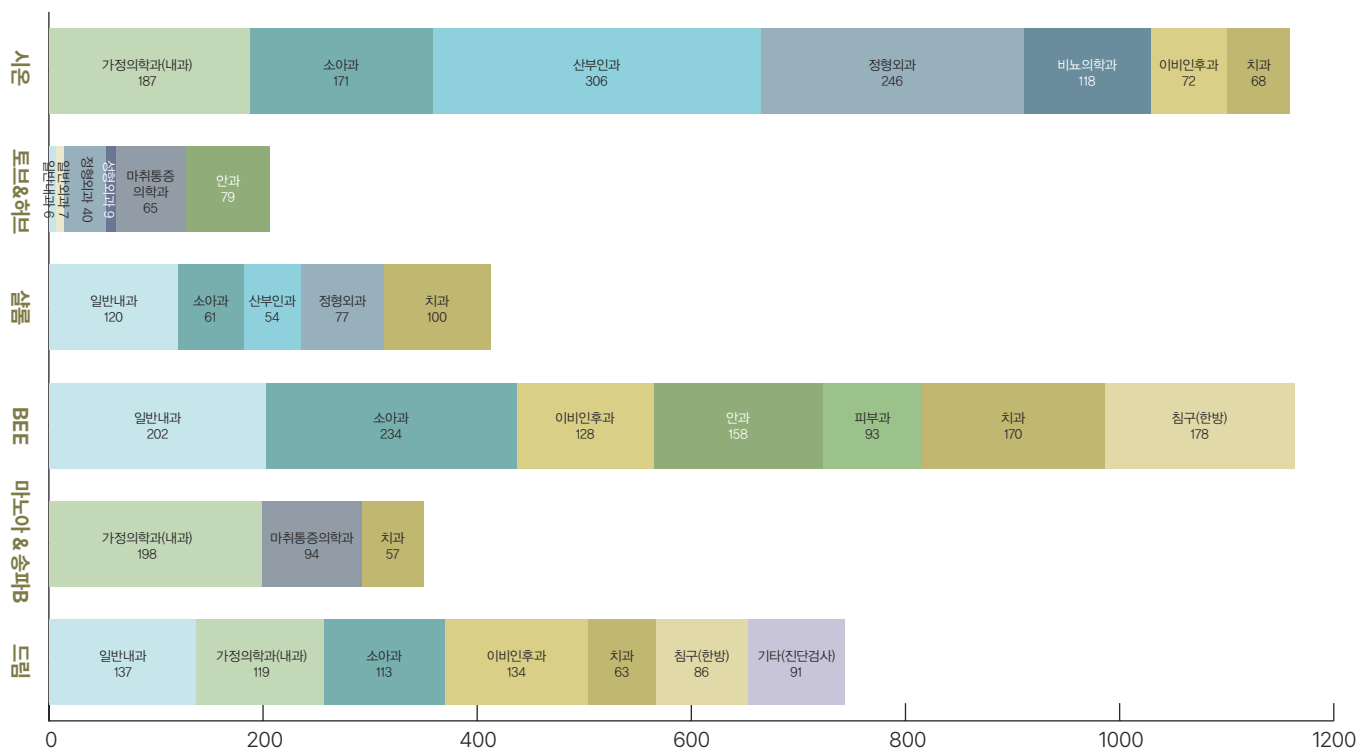
전체 진료 인원

총합 4,171+명



분과별 진료 인원

단위 : 명



01-1 사업 전문화를 위한 세부 진료 데이터

시온 말라위

만성질환자 발견 : 고혈압 202명·당뇨 2명·호흡기 질환 222명·역류성식도염(추정) 123명

상급병원 의뢰 : 암 의심 1명(y/o 선양낭성암종)·기타 3명(이혈종·백내장·농아)

수술 필요 환자 발견 : 24명

"얼굴 전체에 퍼져있는 Giant keloid 환자 및 자궁근종 환자. 두 환자 모두 대양누가병원에서 수술 진행"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주민 수 : 아동·청소년 171명

* 당뇨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당화혈색소 검사 기기를 가져갔으나 인지 환자로 적고 실제 환자가 많지 않았음(발견 2명). 실제 현장에서 많았던 만성질환은 고혈압 202명·호흡기 질환 222명이었고, 역류성식도염(추정)도 123명으로 많았음.

토브 라오스

만성질환자 발견 : 고혈압 10명·당뇨 10명·호흡기 질환 5명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주민 수 : 노인 6명

통증완화치료 : 100명

"통증클리닉에 방문한 상당수 환자들이 과도한 노동등이 원인 이 되어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로 즉시 통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먹는 약과 이후 자세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였습니다."

「식수위생 관리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의 수」·「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 손씻기·치아 교육 주민 200~300여 명

수술 : 40여 건 시행

"안과 백내장등 40여건의 수술을 시행함.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등을 포함한 검진을 계획하고 갔으나 환자들이 처음 받아 보는 내시경 시술을 무서워함."

샬롬 필리핀 보홀

상급병원 의뢰 : 암 의심 1명(가슴 종기·피부암 의심. 병원 방문 권유)

"초음파 검사를 하러 온 여성이 있었는데 수년간 가슴에 종기

가 있었고 병변은 딱딱하고 일부 과사가 보였으며 피부암이 의심되어 병원 방문을 권유."

당뇨 : 수치 미기재(당화혈색소 13%·14% 사례 비교)

「식수위생 관리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의 수」·「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 손씻기·치아 교육 현지 초·중·고등학교 150여 명

"피부질환, 손발 저림, 당뇨병, 고혈압 / Skin tag, 지방종, 사마귀 / 산모 50%, 자궁근종, 난소낭종, 무월경, 자궁암 / 발치 100명 가량"

BEE 인도네시아 브카시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주민 수」 : 아동 120명(시력·청력·키·몸무게)

「식수위생 관리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의 수」·「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 손씻기·치아 교육 약 100명

"치과 충치 치료→발치가 최다. 25년도에는 산부인과 환자가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병원비를 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_말라위 릴롱게 · 시온

"대부분 비싼 비용으로,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_인도네시아 브카시 · BEE

"병원도 거리가 멀고 병원, 의사 수도 매우 적음. 교통도 발달하지 않아 병원 가기에 어려움이 있음"

_말라위 릴롱게 · 시온

비용

불신·인식

치료를
가로막는 것들

인프라

"보건소가 있지만 잘 이용되지 않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_네팔 카트만두 · 드림

"서양의학 보다는 민간요법에 의지. 만성병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약이 있으면 복용하다 임의 중단(교육 필요)"

_인도네시아 람퐁 · 마하나임

* 같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병원이 봉사 방문하는 람퐁은 전통 치료 우선이 0.5% - 인식 장벽은 병원-마을 접점이 있는 곳에서 낮았다.

"진료소가 있으나 의사가 항상 상주할 수 없는 외진 마을이었음"

_인도네시아 람퐁 · 마하나임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못해 외과 치료 후 자가 드레싱 교육이 필요해 보였음" _필리핀 보홀 · 샬롬

가장 많이 본 질환

고혈압	●●●●●	말라위·필리핀·인도네시아 브카시 람퐁 반둥
당뇨·고혈당	●●●●	필리핀·인도네시아 브카시 람퐁 반둥
근골격계·통증 관절염·추간판 등	●●●●	말라위·라오스·인도네시아 반둥·네팔
소화기 역류·위염·복통	●●●	말라위·인도네시아 반둥·네팔
치과 충치·발치 다수	●●	필리핀·인도네시아 브카시
피부질환	●●	필리핀·인도네시아 브카시
호흡기 감기·COPD 의심	●●	말라위·인도네시아 반둥
이상지질혈증 피검사 실측	●	인도네시아 람퐁
안과 백내장 수술 40여 건	●	라오스
산부인과	●	필리핀



◀ 아웃리치 지역에서 만성질환이 가장 많은 질환이었다. 7팀 중 5팀이 고혈압을, 4팀이 당뇨와 통증을 가장 많이 본 질환으로 꼽았다. 노동으로 인한 통증 역시 높은 순위에 있었다. 전기 미공급 지역(말라위)에서는 역류성식도염(추정)이 두드러졌다.

많았는데, 올해는 환자가 많지 않았고, 작년에는 치과 환자가 많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아짐."

마하나임 인도네시아 람퐁

만성질환자 발견 : 고혈압 신규 20명(기준 초과 172명)·고혈당 13명(임의혈당 200 이상 6·공복혈당 126 이상 7)·이상지질혈증 172명(86.9%)

심혈관 고위험군 : 41명(20.7%) 선별·병원 연계 추적 권고
상급병원 의뢰 : 1명(심장기능 약화 환자, 마르디와루요 병원 치료 연계)

"심장기능이 많이 약화된 환자로서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르디와루요 병원을 연결해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주민 수" : 주민·성인 198명 (M-Care 심뇌혈관 스크리닝)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 피검사 시행 후 고지혈증 유병률이 예상보다 매우 높았음"

"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관리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인력 수" : 의료세미나 약 70명

드림 네팔 카트만두

상급병원 의뢰 : 암 의심 1명(초음파상 신장암 의심)·기타 20명
"단순히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싶다고 온 분이 검사상에서 신장에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됨. 상급병원으로 가시도록 권유함"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주민 수" : 아동·청소년 93명
"식수위생 관리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의 수" : "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 손씻기·치아 교육 100명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초음파 및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하나임 인도네시아 반둥

"고혈압, 당뇨병, 위염(위궤양), 빈혈, 구토/설사, 통증, 호흡곤

란(흡연과 관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

도입 검토 지표 WHO·KOICA 지향 지표 기준

"주요 감염병 진단 또는 치료 수혜자 수(비율),(SDG 3.3) 결핵, 말라리아(시온팀이 올해 이미 발열 환자 RDT를 시행)
"감염병/소외질환 예방/대응 교육을 받은 주민 수(결핵 교육 등)
"감염병/소외질환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은 보건의료인 수
"성생식보건/모자보건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
"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관리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인력 수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성과지표)

• 유병 기준: 고혈압은 140/90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의사진단·혈당당 하제·인슐린 사용
• 특정 시점 유병자 수×100÷같은 시점 18세 이상 인구 수.

* 성별 분리·직종별 분리 권고

* WHO NCD 4대 축 : 심혈관질환·암·당뇨·만성호흡기질환

02 아웃리치 보건교육 손씻기·양치



▲ 손씻기 교육 자료

시온 · 말라위

강사 노희원 자매

대상·인원 시온팀 및 선교사 24명

– 현지 직원 및 아이들에게는
일정상 교육하지 못하였음

-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 어떻게 손을 씻을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음. 또한 아이들이 주일에 천명이상 방문하는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었음.
-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 경우 소화기 질환이나 안구, 호흡기 감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이 필요함.
- 결핵 교재가 시급히 만들어지면 좋겠음.
- 손씻기 교재에 나온 손씻는 방법 가이드를 말라위어 번역 및 현지 반영 그림으로 요청(전달 완료)

살롬 · 필리핀 보홀

강사 이건희·한진희·조은샘·
정하랑·정하늘·박검희

대상·인원 현지 초중등학생 150여 명

현장 반응

- 함께 손씻는 순서를 따라하도록 유도했는데 다같이 호응해주면서 함께 손씻기 실습하는 반응이 인상 깊었음
- 보다 간략하게 핵심만 들어있으면 좋겠음. 아이들에게 교육하기에 내용이 길어 루즈한 느낌이 있었음



토브 · 라오스

강사 허브공동체 청년들로 의대생이 강의를 맡음

대상·인원 라오스 현지 아이들 200~300여 명

현장 반응

- “호응도가 무척 좋았으며 같이 온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 “현지 언어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씻기 교재



BEE · 인도네시아 브카시

강사 김건중 청년(여호수아 공동체)

대상·인원 CALVARY CINYOSING 학교
대략 100명

현장 반응

- “아이들이 처음 받아보는 보건교육이라고 현지 선생님께 들었고, 체계적으로 시각 자료를 통해 손씻기 및 칫솔질을 설명하고, 저희가 가져간 치아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칫솔질을 하는 것까지 교육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고, 또한 잘 따라해 주어서, 너무 효과적인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지 교회 분에게 들은 피드백인데, 손씻기, 치아 교재도 정말 좋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에 관련된 교재도 성인진료 볼 때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드림·네팔 카트만두

강사 현지 통역보조원

대상·인원 현지 어린이 100명

현장 반응

- “아이들이 진지하게 내용을 경청했고, 실천하자고 했을 때 긍정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음”
- “보건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비누 혹은 칫솔을 같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양치 교재



라파·태국 춘부리

대상 엘드림 국제학교 학생

*인도네시아: 만성질환(NCD) 교재(토브의 검진 수용성 과제에도 선행 교육으로 활용 가능), 말라위: 결핵 교재 요청. 두 건 모두 KOICA 정식 지표와 연결될 수 있어 NCD 교육은 「건강증진/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결핵 교육은 「감염병/소외열대질환 예방/대응 교육을 받은 주민 수로 집계 가능.



03 아웃리치 세미나 의료 세미나

마노아·마르디와루요 병원 의료인 대상

- ❶ 고혈압·이상지질혈증과 심혈관질환 Hypertension, Dyslipidemia & Cardiovascular Disease
– 안철민 이사(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 ❷ 약물 관련 악골괴사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
– 황윤정(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구강악안면외과)
- ❸ 당뇨병과 고혈압 약물치료의 기본 DM & HTN Medications: Get the Basics in 30 minutes
– 이시은 약사

04 1:1 홈케어 가정방문 마노아



“바뚜바닥과 스감풍 마을 가정 방문할 때 동행해 주신 인도네시아 의료진들.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가정들이어서 그런지 침대맡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매일 함께하는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따뜻한 손길과 눈길에 편안해 하는 환자분들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정 방문지역에서 뇌출혈로 다리와 손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는 60대 남성과 어르신(81세)의 눈물어린 표정으로 감동하며 감사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하다.”

마르디와루요 병원 간호사들이 각 마을의 치료받은 분들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역인 홈케어(CSR·월 2회)에 합류하여 바뚜바닥(8.13)·스감풍(8.15) 두 마을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1:1 진료를 진행했다.

“바뚜바닥 마을에서 가정 심방 때 만난 1971년 동갑내기(뇌출혈로 2년째 거동이 어려운)을 ...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05 메디엑세스 이미용/어린이사역 팀별 별도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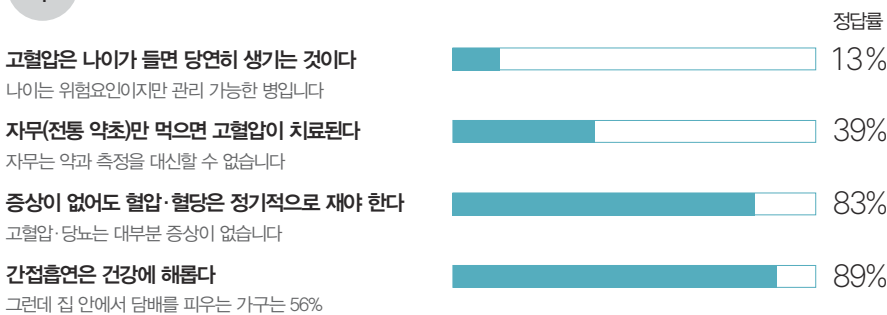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 인도네시아 람퐁 현지조사

2026. 6. 16~ 21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사전 현지조사·카더
-포시안두 체계 역량강화를 통한 1차 보건의로 접근성 향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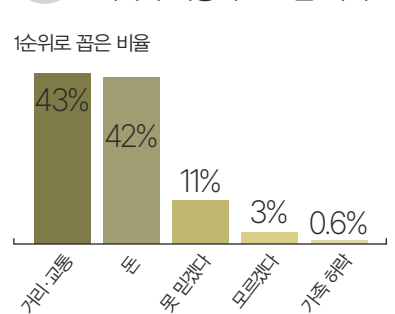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람퐁 띠틀의 두 마을(뿌르오곤조노(1,350세대)·바뚜바닥(800세대))에서 마르디와루요 UPKM(사회봉사)팀과 함께 현지 조사를 수행, 주민설문 189가구(가정방문 1:1 면접), 집단토론(FGD·FGI) 4 회, 카더설문 16명, 심층면담(KII) 3회, 심층 가정 사례 3건, 현장관찰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메디엑 세스가 함께 공유하여 앞으로 함께할일을 논의하였습니다.

189가구 가정방문 설문
7회 집단토론(FGI)·심층면담(KII)
3건 심층 가정 사례
6일 현지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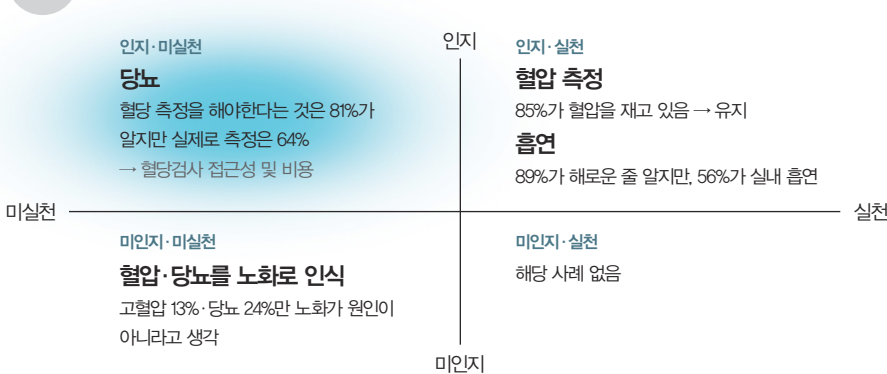
1 건강 인식 : 기초 지식은 높으나 만성질환 이해는 낮음



2 접근성 장벽 : 거리와 비용이 85%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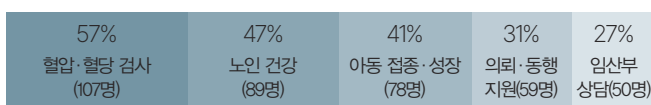
3 인식-실천 격차 : 개입 우선순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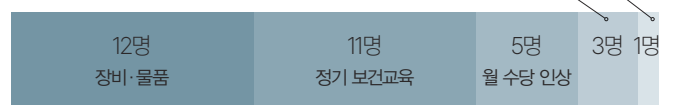
◀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도, 조사
에서 가장 필요가 확인된 곳도
만성질환(NCD)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으로 찾은 더 좋은 접근법을 따라, 혈당 측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 좋은 만성질환 관리법을 습관으로 만드는 등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려 합니다.

4 사업 방향 :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



▲ 주민들이 포시안두에서 받고 싶은 것 (희망서비스, 3개)



▲ 카더가 원하는 자원(가장 도움 되는 자원, 최대 2개)

이번에 조사한 람퐁 띠틀의 두 마을은 마르디와루요 병원과 선교사님의 정기적인 방문봉사가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거리와 비용이라는 의료 장벽은 여전히지만, 그에 비해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이해는 높았습니다. 아플 때 전통치료를 먼저 찾는 주민은 189명 중 1명이었고, 증상이 없어도 혈압·혈당을 재야 한다는 것은 열 명 중 여덟이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하나임팀이 올해 다녀온 반등은 아직 전통 치료와 민간요법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곳과 BEE팀이 다녀온 브카시 역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진단을 받아도 약을 꾸준히 먹지 않고, 정기적으로 다시 측정하지 않습니다. 증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검진을 받는 것, 너무 달거나 짜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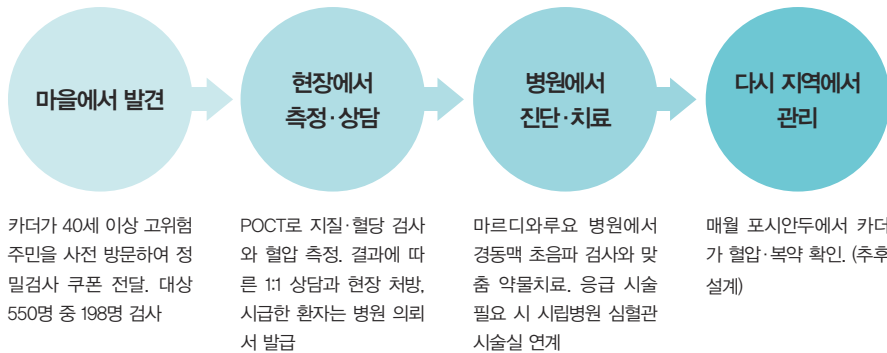
두 달 뒤, 8월, 마르디와루요 병원 의료진과 함께 첫 심뇌혈관 스크리닝 파일럿(M-Care)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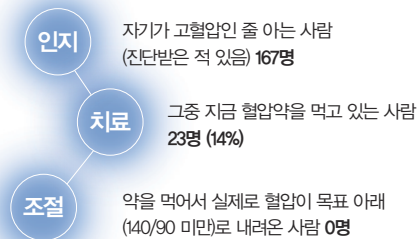
M-Care 파일럿 사업

: NCD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 스크리닝

6월 현지조사가 만성질환(NCD) 관리 공백을 확인하자, 이를 계기로 마르디와루요 병원장의 NCD 특화 의지와 현지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8월 마노아&송파8팀과 병원 의료진이 합동으로 첫 심뇌혈관 스크리닝 파일럿(M-Care)을 실행했습니다. 바뚜바닥 마을(8.13) 88명, 스감풍(8.15) 110명 — 총 198명에게 혈압 측정·현장 지질검사(POCT) 혈당·심초음파(39명)·현장 처방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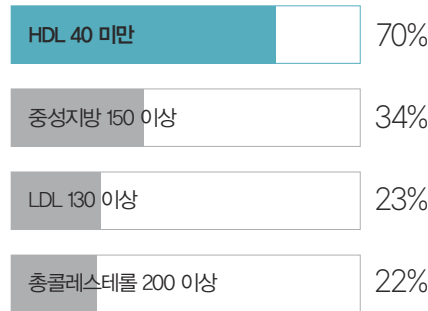


고혈압 167명의 치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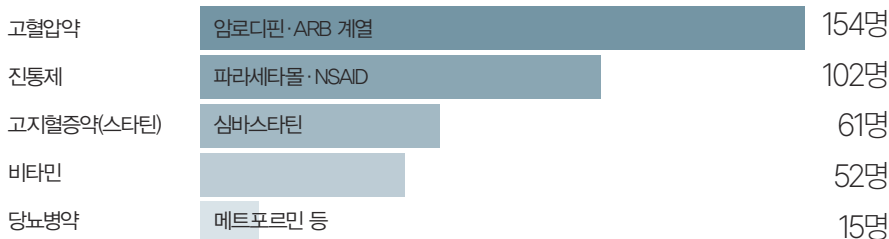


*144명(86%)이 약을 끊은 상태 / 약을 먹는 23명도 목표 혈압에 이르지 못함

HDL 콜레스테롤 저하가 열 명 중 일곱



현장 처방



심초음파 39명, 절반이 이상소견 : 임상적으로 필요한 주민에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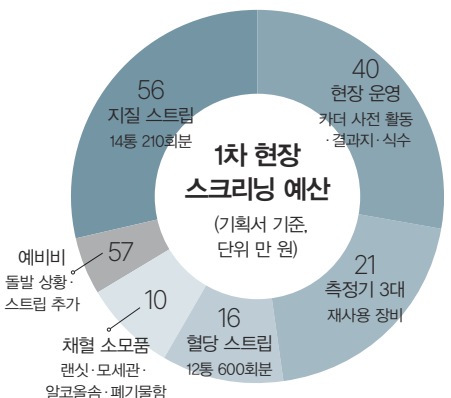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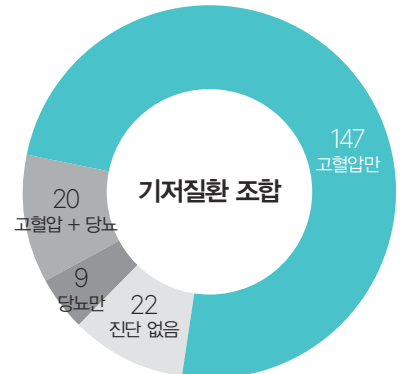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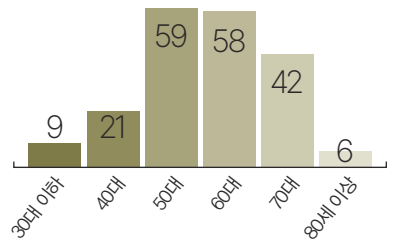
정상	20	WNL 10 · Normal 9 · 판막·기능 정상 1
좌심실 비대	6	LVH 3 · mild LVH 2 · LVH+기능 정상 1
판막 이상	3	대동맥판 석회화 · MR · AR
심기능 저하	2	박출률 25% · 40%
기타	8	심방 확대 등

*심기능 저하 2명은 박출률 25%·40%. 병원 추적 관리로 연계

198명 검사·상담
2일 8.13 바뚜바닥 · 8.15 스감풍
60.3세 평균 나이 (26~100)
39명 심장 초음파
200만원 검사키트·현장 운영 전체

연령 분포

50~60대가 검사의 절반 이상(기록 195명)



▲ 함께 배포한 고혈압 교육 리플릿(인도네시아어)

06 아웃리치 개선제안

01 다음세대 팀·사역

의대생에게 연계 보건소 등에서 1차 진료 기회·주니어 살롱팀 신설

“의대생들이 10여 명 참여하였는데 1차 진료에 없는 상태여서 의사지망생으로서 기본적 술기 등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02 의료진의 부족

“같은 곳(인도네시아 브카시) 재방문 시 치과의사 4-5명 모집 필요”

03 보건 환경 조성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할 물건(비누·칫솔) 공급, 물 부족 상황의 손씻기 방법, 인원이 많은 아동 교육 방법

“보건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비누 혹은 칫솔을 같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이들이 주일에 천명 이상 방문하는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04 합법적 의료봉사 방법

“어느 나라로”보다 “어디에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가”를 먼저·한국 약·의료기기 공식 반입

“해외 의료 아웃리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현지 의료법과 면허 제도는 어떠한지, 필요한 허가 및 협력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한다.”

05 질병 예방 교육

새 교재 요청

① 결핵교재 “시급히 만들어지면 좋겠음”

② 만성질환 교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에 관련된 교재도 성인진료 볼 때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료 현장 교육

① 자가 드레싱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못해 외과적 치료 후 후처치를 위한 자가 드레싱 교육이 필요해 보였음”

②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습관

③ 복약 임의 중단 “만성병 관리 인식 부족으로 약이 있으면 먹다 끊음(교육필요)”

④ 검사 사전 설명 “처음 받아보는 시술(내시경)을 무서워함”

현지 인력(카더) 교육

“주민들은 ... 아프거나 하면 카더한테 물어봐요. 그 병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면 좋죠, 만성질환, 당뇨... (잘못 답할 위험도 있으니) 병원 직원이 보건교육 같은 걸 열어줬으면 해요.” (탐풍 현지조사, 카더 FGI)



07 지난 아웃리치 개선점, 올해는

01 의료인력 충원 → 부분진전, 팀별 상이

02 장비 충원 → 부분진전

03 현지약 구매 → 부분진전

약무팀과 각 아웃리치팀, 현지 선교사 협업을 통한 진전.

04 한국 의약품을 현지 협력병원 경유로 공급 → 부분진전

토브는 장비를 사전 구매해 비엔티엔 주립병원으로 화물 발송하여 “현지 협력 의료기관을 경유해 조달·수령”하는 경로 사용.

05 약물·의료기기 합법 반입 체계·아웃리치 공식 절차 준비

→ 부분진전, 팀별 상이

네팔·라오스·필리핀·인도네시아 브카시·태국 5곳은 사무국이 팀별 요청에 따라 준비 기간에 현지 사역자를 통해 진료·물품 반입 협조 공문 발송. 나머지 3곳은 현지 협력병원(대양누가·마르디와루요·까르티니)이 허가 신청 담당. 특히 마하나임은 외국인 진료·투약 허가 신청은 까르티니 병원과 현지 의사가, 읍장·면장 허가는 현지 신학교가 맡는 투트랙 구조로 문제 발생 소지 해소.

도착국 통관 및 의료면하는 올해도 어려움 지속. 나라별 해외 의료봉사 기준과 규정이 엄격해 공문과 세관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 다수. 사무국은 통관과 면허를 중심으로 지역별 준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다음 아웃리치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협력병원이 없는 사역지는 팀과 함께

현지 파트너 병원 탐색 지원. 지역 선정 기준은 팀 제안과 같이 “어디에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가”를 우선.

*한국 출입국 시에는 원칙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제1호, 여행자휴대품고시). 한국 세관의 확인 목적은 해외에서 새로 산 과세 대상 물품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면세통로로 통과하고, 세관이 확인을 요구할 때만 장비 시리얼넘버와 사진(새 장비는 한국 구매영수증)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장비임을 증명하면 된다. 출국 시 신고를 통해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으면 입국 시 신고가 의무가 되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06 일반 봉사자 헬퍼 사전 트레이닝 → 필요에 따른 진행 필요

07 세미나의 심포지엄화·맞춤형 교육 → 필요에 따른 진행 필요

08 진료 시간·사역일 확대 → 팀별 상황과 일정에 따른 적용

09 현지 의사와의 협업 진료 → 진전

노아는 마르디와루요 병원 의사 4명이 진료에 합류하여 협업. 마하나임은 까르티니 병원 의료진 9명과의 협업. 토브는 비엔티엔 주립병원 안에서 백내장 등 40여 건을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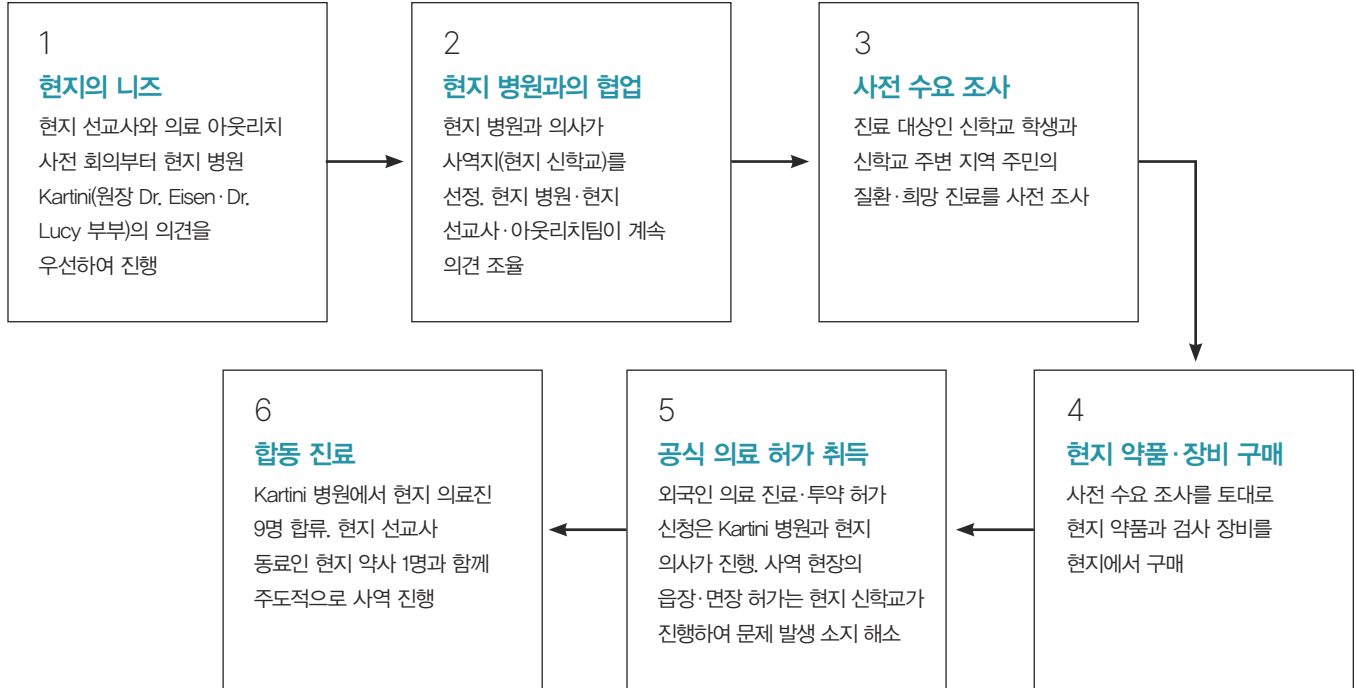
10 현지 병원 운영 현황과 고충을 듣는 시간 → 부분진전

11 역류성식도염 생활수칙 캠페인 → 계속 과제

08 더좋은 아웃리치를 위한 팀별 제안

제안 1. 현지 병원과 함께 만든 아웃리치 모델

마하나임팀·인도네시아 반둥·까르티니(Kartini) 병원과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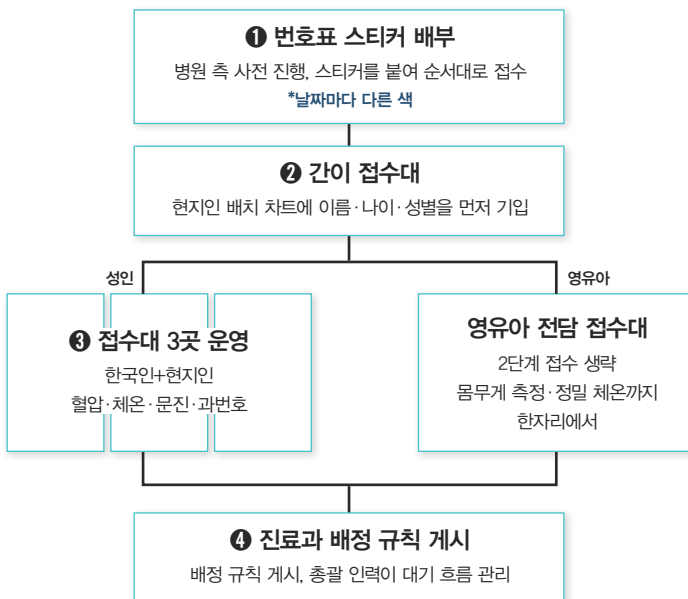


“약사인 온누리 선교사와 현지 병원·약사가 함께 현지에 필요한 의료 사역을 상시 진행할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현지 의료선교 사역팀 구성에 합의를 했다. 허가·장소·수요조사가 현지 기관의 몫이 되면서 외국 의료진의 법적·행정적 문제 소지가 사전에 해소되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지향할 의료 아웃리치 모델 하나를 제시했다고 본다.” _인도네시아 반둥·마하나임

제안 2. 아웃리치 접수 운영

시온팀·말라위 릴롱웨·대양누가 병원과 협업

환자가 지나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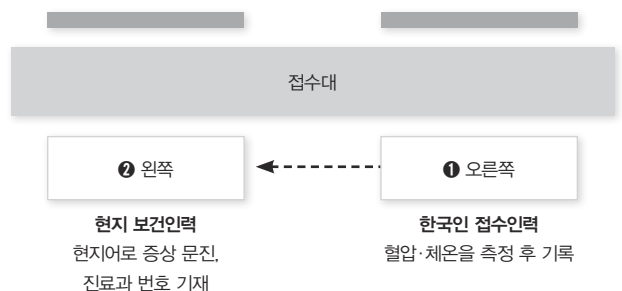


빈 과 발생 시 해당 과 환자를 손쉽게 해서 먼저 접수해 들여보냄.
대기 포화 시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전체 흐름이 풀리면 재개



접수대 좌석 배치

환자는 오른쪽에 먼저 앉고, 측정이 끝나면 바로 옆 왼쪽 좌석으로 이동.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 돌이켜 보면 이번 여행은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라위를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말라위가 우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미소는 잊고 살던 감사를 다시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_송기선 장로(시온 말라위)**
-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룬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생각해 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_박용원 장로(시온 말라위)**
- 아웃리치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다. 그리고 아웃리치에서 진료 보조를 한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병상에 있는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 할아버지에게 미안하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_한진희 학생(살롬 필리핀 보홀)**
- 바뚜바닥 마을과 스감풍 마을의 훌케어 사역에서 저는 주민들과의 강한 동질감과 함께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이었던 50년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_윤재현 집사(마노아 인도네시아 람퐁)**
- 작년(25년)에는 13명의 인원으로 아웃리치 팀이 구성되어 사역 퍼포먼스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의사 12명 포함 총 30명의 팀이 구성되어 너무나 파워풀한 은혜로운 아웃리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역에서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연합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은혜로웠습니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 갑작스러운 비행기 스케줄 변경과 여권 분실 등 여러가지 악재 가운데에서도, 대략 1100명 정도의 인원을 진료하고, 어린이 사역 또한 잘 진행하였습니다. 현지 교회에서의 예배와 우리 아웃리치 팀의 특송 또한 저희 아웃리치에서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_이성윤 팀장(BEE 인도네시아 브카시)**
- 한 달 월급 만오천 원인 아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초음파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하신 메디엑세스 모든 의료진들이 땀이 주룩룩 흐르는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에, 그들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간절한 눈빛과 환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한 기도가 새어나왔다. **_여선화 집사(마노아 인도네시아 람퐁)**

-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낯선 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이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제 마음에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_이시은 약사(마노아 인도네시아 람퐁)**
- 한국에서 가져간 혈액검사가 현지에서 2명 정도 사용하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고, 그 외 빈혈검사기, 당화혈색소 검사기, 초음파를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와 같이 사역하게 되어, 교인분들이 진료 볼 때 통역을 해주셔서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_(BEE 인도네시아 브카시)**
-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좋았고, 오랜만에 아웃리치 간 팀원들은 더 좋은 장비들로 질 높은 진료를 시행할 수 있음에 대해 만족했음.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아 많이 찾지 않는데, 이번에 아웃리치 팀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게 되어서 기뻐다. 현지에서는 오래 걸리는 검사인데 빠르게 검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고, 관심을 보였다. **_(드림 네팔 카트만두)**
- 청소년, 중장년, 노년의 전 세대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사역하고, 찬양과 예배와 나눔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녁에 모여 선교사님과 사역 현실을 나누고 교회 건축현장을 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팀별로 맡은 역할과 사역을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현지 약 준비를 긴 시간 해 주신 약사님과 선교사님의 수고, 현지 스텝들의 통역으로 동역해주심과 정성스런 식사 준비 사무국의 섬세한 도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외부 교인에서 한 가정으로 네 분이 합류하셨는데, 이를 통해서도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_추적금 팀장(살롬 필리핀 보홀)**
- 이번에 다시 느낀 것은 의료선교가 반드시 큰 질병을 치료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의 아픈 곳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것 역시 작은 사랑의 실천일 수 있기 때문이다. **_서달원 팀장(라파 태국 촌부리 방콕)**